2022



•

드리미학교 4기 전지수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빚다.

Dreamy School

(

Rational



빚음을 마치며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신입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이 '빚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드리미학교에서 살아갈 방식으로 나를 바꿔간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며 빚음교육에 임했고, 빚음교육을 받으며 처음에는 내가 받아왔던 교육과 방향성이 많이 달라서 혼란스러워했지만, 빚음교육을 받으며 내가 점점 변화되어간다는 것을 느꼈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빚음교육 1단계는 끝났지만 앞으로 내가 이 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어갈지가 기대되고, 드리미학교에 들어온 것이 내가 신 앙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ABOUT ME 전지수

통영에서 태어나 3형제의 첫째로 자랐고, 신앙적, 인간적으로 더 성 숙해지고자 드리미 4 기생으로 입 학하게 되었다. 사람들과 대화하 는 것과, 영화보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기뻐하라(데살로니가전서 5:17)의 말씀을 항상 지키려고 노 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



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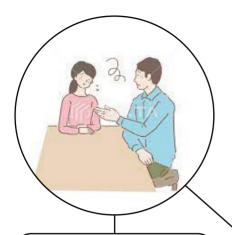
빚음 1단계

사명선언문 신앙에세이 타임엔지니어링 소감 문 언어빚음 소감문 정의 에세이 절제하는 삶의 원칙 공동 성결서약문

빚음 2단계

성결 에세이 평화 에세이 3P창의활동 계획서 문제해결 프로젝트 빚음 2단계 소감문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

사명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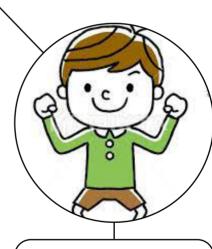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 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자를 대하고 가정 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한다.



내가 속한 일에 무엇이 든지 최선을 다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더라도 남들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는 삶을 산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관리를 하겠다

(

Action Plan 전지수

- 1) 타인의 걱정을 덜어주 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 람이 된다
- 2) 나의 일이 아니라도 타 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 도움을 주겠다.
- 1) 큐티를 귀찮아하지 않고 꼼꼼히 꾸준히 하겠다.
- 2) 매주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겠 다.
- 3) 매일 성경을 3장씩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 1) 성숙한 배우자이자 아버지가 되기 위해 관 련 자료들을 매주 찾아보 겠다.
- 2) 배우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한다.
- 3) 지속적으로 충분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 1) 매일매일 일기를 쓰며 나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2) 악기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 3) 내 의사를 영어로 확실히 표현할 수 있을만 큼 영어공부를 하겠다

- 1) 화나거나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다 풀고 잠 에 들겠다.
- 2)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겠다.
- 3) 내 양심에 찔리는 짓 을 하지 않겠다.





신앙에세이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다. 모태신앙이고, 성경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기엔 내가 너무 확실히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드리미학교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이 학교가 강한 기독교교육을 한다는 점에 있었고 이 학교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첫 복음사경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를 정말 많이했다. 1기 선배들만 있을 때, 복음사경회를 한번 왔었는데, 그때 '이 학교에 들어오면 내 신앙이 정말 좋아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드리미학교에 관심이 생겼고, 드리미학교에 들어올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복음사경회에서, 김선교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음은 기독교 용어가 아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았 을때 기쁜 일이더라도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기 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고, 나에게 감흥이 없다면 결국 나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많이 공감되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하 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을 찾는다는 말과, 사람에게는 정말 하려고 하는 일에 대 한 에너지와 능력은 있지만 그냥 그 일에 에너지를 쏟기 싫어서 그 일을 하지 않 는다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따끔한 쓴소리를 해주는 것 같아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의 주제는 '헌신'이었다. 선교사님은 호세아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호세아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고멜이 다른사람의 아이를 세번이나 임신하고, 아기들을 놓고 집에있는 모든 재산을 챙겨 도망갔음에도 용서해주고, 인간으로써의 가치가 바닥나 팔려갈 상황에 처해진 고멜을 자신의 돈으로 사와 들로 데려간 후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어야 했다. 나는 이





(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멜의 잘못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호세아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는 우리가 호세아가 아니라 우리는 고멜이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장에서 고멜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말을 듣고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

그 이후 고난주간을 보내며, 신앙적으로 깊고 진지한 고민을 했다. 나는 나 스스로 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도 나 때 문에 누군가가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믿었지만,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 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 만 고난주간 이후,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들었다. 그냥 나를 놓고, 내 인생을 돌아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가늠조차 가지 않는데 대체 나는 무엇을 보 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게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지옥인데 나를 구원해주시려고 죽 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지도 못할망정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 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합리화만 하던 나 자신이 그렇게 한심해보일 수 없었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같은 죄를 여러번 짓지 못하지만 죄를 짓고싶은 마음이 더 크 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같은 죄를 계속 짓고 계속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 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다. 십자가는 원래 내가 있었 어야 하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항 상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싶다.

드리미학교에서 2달정도 지냈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들어 이 학교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리미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타임엔지니어링

처음 이 수업을 들으며 차원이라는 개념과 인간관계에서 차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와, 시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잘모르겠다'고 했고, 뉴턴 시대에는 '과거에서 출발에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시간의 순차성을 이야기함) 그러나 아인슈타인 시대에 와서 '상대성이론'이 나오며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에 대한 모순이 발생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없다'고 결론 났다. 그렇다면 현재는 무엇일까?

현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시간을 계속 쪼개보았더니 제로에 수렴한다. 즉 현재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의 순서를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시간은 선택성, 압축성, 초월성, 복제성, 계시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의 초월성

먼저, 과거는 바꿀 수 없고, 현재는 바꾸려고 하면 매우 힘들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이 것을 시간의 초월성이라고 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에서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다. (100년 전의 개와 지금의 개는 큰 차이가 없다) = 동물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학교나, 집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속도는 빛의 속도를 초월한다. 그렇기에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속도가 무한대가 된다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빛을 따라잡을 수 있다. 우리가 이초월성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루고자 하는 것,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간의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이다.

시간의 선택성

우리는 사건의 순서를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시간관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날 '사건의 순서'를 잘 배치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시간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





(

세게 일어날 사건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 가한다. 보통은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신으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시간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로 가서 어떤 사건을 일으킬 지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하고, 선택된 것을 현재로 가져와 현재와 미래 의 차이를 메꾸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현실을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일 이다.

영어단어 100개를 외운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하나씩 외운다면 100일이 걸리지만 하루에 10개씩 외운다면 100일이 10일로 압축되고, 하루에 100개를 외울 수 있다면, 100일이 하루로 압축된다. 이것을 시간의 압축성이라고 한다. 시간과 사건을 압축시켰을때, 폭발력이 나온다고 배웠는데,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해내려는 힘을 가지려면 시간과 사건을 압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장님은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상상하고 그 미래의 일을 현재에 가져와서 미래의 모습이 되기에 무엇이 부족한지 떠올려보고,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서 미래의 모습이 될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고싶은지간에, 내가 지금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을거라는 말처럼 들려서 나름의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멍청해진다. 그런 곳에 자신의 생각을 다 써버려 새로운 아이디 어들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와 하늘 사이는 죄로 막혀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 축복, 기쁨이 나에게로 전해지지 않는다. 경건해지기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많다. 나쁜 생각들로 내가 채워지다 보니 하늘에서 나에게 주는 좋은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공감이 되었고 내 평소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들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런식으로 부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좋은 생각이 들게 하시려고 해도 죄 때문에 그 좋은 생각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의 계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속에서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엔지니어링 수업은 내 삶을 당장 바꿔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내가 국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뉴턴 시대에는 '과거에서 출발해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시간의 순차성을 이야기함) 그러나 아인슈타인 시대에 와서 '상대성이론'이 나오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에 대한 모순이 발생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없다'고 결론났다

현재는 무엇인가?

현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시간을 계속 쪼개보았더니 제로에 수렴한다 = 시간은 없다 사건의 순서를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것 뿐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 시간의 선택성

우리는 사건의 순서를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시간관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날 '사건의 순서'를 잘 배치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시간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을 선택할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보통은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신으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First thing put first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시간의 압축성

예를들어, 영어단어 100개를 외운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하나씩 외운다면 100일이 걸리지만 하루에 10개씩 외운다면 100일이 10일로 압축되고, 하루에 100개를 외울 수 있다면, 100일이 하루로 압축된다. 사건을 압축시켰을때, 폭발력이 나오고,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해내려는 힘을 가지려면 시간과 사건을 압축시켜야 한다.

시간의 초월성

과거는 바꿀 수 없고, 현재는 바꾸려고 하면 매우 힘들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이것을 시간의 초월성이라

4

·리는 얼마든지 현재에서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다. (100년 전의 개와 지금의 개는 큰 차이가 없다) = 동물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다.

왜 동물은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뀐 것이 없는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동물은 자신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 사람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학교나, 집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속도는 빛의 속도를 초월한다. 그렇기에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속도가 무한대가 된다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빛을 따라잡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초월성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루고자 하는 것,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이다.

시간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로 가서 어떤 사건을 일으킬 지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하고, 선택된 것을 현재로 가져와 현재와 미래의 갭을 메꾸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현실을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일이다.

5차원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지구가 공전하는 주기를 1년이라고 하자,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를 하루라고 하자)

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한다. 내가 죽자마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자마자 바로 죽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 죽지 않는다.(과거와 미래 없이 현재만 존재한다) 5차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한 점이다. 하나님은 알파이며 오메가시고, 처음이자 끝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보면 시제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만 틀린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의 결과는 남는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말미암았다.



언어빚음 소감문

한국어는 청자 중심의 언어이고, 전 세계의 언어 중 높임법이 가장 발달한 언어이다. (해요체, 해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해라체, 하게체) 한국어는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언어이며, 서술어가 가장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함부로 끊거나 듣지 않고 오해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영어로는 빨간색을 red 하나로만 표현하지만, 한국어는 붉다, 새빨갛다, 벌겋다 등의 감각적이고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감각적인 단어들을 내버려두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의 단순화된 표현들을 내 가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어 내 언어습관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조 금 더 확실하게 들었다. 말과 관련된 성경적인 표현들도 몇가지 알게되었고, 죄 이전의 말,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이 하는 말이 어떻게 바 뀌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 하와를 처음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는 말을 했는데. 나는 이 말이 정말 예쁘게 보였다. 한 사람이 다 른 한 사람을 처음 보고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예쁜 말들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 도 들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즉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 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 는 말을 했다. 나는 이것을 보고 꽤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하와를 '하나님 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 해 하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차라리 정말 하와 를 사랑했다면 자신이 선악과를 혼자 먹었고, 하와는 먹지 않았다고 하와를 보호해주는 말을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다.그 말을 들은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지를 생각해보니 조금 속이 쓰렸다. 아담은 그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미 련이 나에게 조금 크게 남았다. 그 이후, 선생님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욕들의 기원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다. 몇개는 알고있는 것들이었고, 몇개는 모르는 것들이었는데, 내 가 흔히 쓰던 말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내가 지금 언어습관 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처음 언어빚음 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솔직히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는 않았다. 나는 지금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거면 된다고 생각했다. 조금 말을 험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다. 내 언어생활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 예전부터 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욕을 사용하는 상황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욕을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생님들이 해주시던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언어를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고,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타인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과, 욕을 하면 나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방법 또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싶다. 또한, 내가 하는 말을 어린 아이들이 배워서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조심해야겠다.

언어생활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방법

- 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 ㅁ 주변에 좋은 언어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좋은 언어습관을 배운다.
- ㅁ 기도할 때 쓰지 못할 말은 평소에도 쓰지 않는다.
- ㅁ 나쁜 언어를 대체할 언어들을 생각해본다.
- ㅁ 본인이 얼마나 나쁜말을 하고있었는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고, 고치려고 하는 의지
- 가 필요하다
- ㅁ 욕의 기원과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 ㅁ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움과 노력도 필요하다.







정의 에세이

과연 정의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정의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말을 쓰는 것일까? 사전적 정의의 개념은 바르고 올바른 것이라는 뜻인데, 과연 정의가 그냥 바르고 올바르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은 남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인 것 같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나스스로가 찾기를 바랐고, 수업을 듣는 동안 정의가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처음 이 수업을 들을 때, 도둑질의 정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같이 배웠다.

그때 도둑질의 정의를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썼었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료조사도 해보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인류 역사상 정말 똑똑했던 철학자들의 생각도 많이 찾아보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공동의 이익'이라고 보았다. 나는 이 말이 크게 와닿았다. 평소에도 정의로운 것은 결국에 '공평'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고, 공동의 이익과 공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밀접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든 순간부터 내가 정의라는 개념과 공평이라는 개념을 거의 동일시하고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갔던 것 같다.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은 내가 정의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 같다. 인간의 도덕수준을 6단계로 나누어 놓고, 기준을 쉽게 만들어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해놓으 니 '이런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이나, '이런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하던 모든 고민이 풀리지는 않았다. 과연 개인주의 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일까?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롭 지 않다고 하려면 개인주의 자체를 정의롭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데, 나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 지 않는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다른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정말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의라는 것도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정말 정의로운 일이더라도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의롭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고, 남에게 정말 정의로운 행동이더라도 나에게 악영향이 미친다면 내가 느끼기에는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6단계의 도덕수준을 가진 사람은 과연 정의로운 사람일까? 6단계의 도덕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양심을 토대로 추상









적인 원칙을 고려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양심을 토대로 추상적인 원칙마저 고려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꼭 그렇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정의란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은 내가 정의에 대해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했지만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혼란을 더해주었을 뿐 정의가 무엇인지 나에게 해답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정의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배우면서 정의란 무엇인지, '정의로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어떤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생명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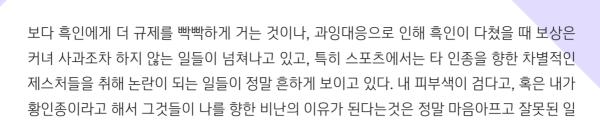
청년은 예수님께 어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냐고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청년이 자신은 모든 것을 지켰는데 어떤 것이 부족하냐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해지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희년의 개념에 대해 배우면서도 희년에 종들이 자유하게 되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매인 자들이 모두 풀린다는 것을 보고 성경은 정의를 '약자를 돌보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정의에 대해 어느정도 개념정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 조 친구들과 토의를 해보았다.

예원이는 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고, 규한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회를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종차별과 남녀차별이 심각한 사회를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것들의 사례를 몇가지 찾아보았다. 먼저, 아프리카 가나의 장례식에서 유래되었고 2020년 3월부터 5월 초중순까지 SNS를 통해 전파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관짝밈'이라고 하는 인터넷 밈이 있었는데, 의정부고등학교에서 이것을 패러디해 졸업사진을 찍었다. 학생들은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을 알게 된 유명인 샘 오취리가 이것을 향해 '블랙페이스'를 따라했다고 지적했다. '블랙페이스는 흑인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인종의 피부색을 까맣게 칠해 우습게 보이게 만드는 인종차별적인 유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며 샘오취리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켰다. 나는 이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몰랐다고하더라도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담긴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이것에 대해사과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조금만 찾아봐도 경찰이 백인





이라고 생각해서 인종차별이 심각한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두번째로, 남녀차별이다. 남녀차별은 현재사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남녀간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고, 젠더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 균열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남녀차별이 심각한 사회가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고 생각했고, 솔직하게 지금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일을 했지만 여자라서 임금을 적게 받거나, 남자라서 임금을 적게 받았다는 사례도 아얘 보이지 않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박혀있는 아주 작은 생각들때문에 완전히 남녀가 평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현대사회의 불편한 진실인 것 같다.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에 더욱 초점을 맞췄던 것 같다.

나는 솔직히 아직도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사전적 의미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인 것도 알겠고, 성경에서 약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라고 한 것도 알겠고,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에 대해서도 대충 이해한 것 같고, 어떤 사회가 정의롭지 않은지도 다 알겠다. 그런데도 나는 정의가 무엇인지 아직 결론내리지 못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예전부터, 수업을 듣는 동안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하고있는 질문이다. 솔직히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기대를 했는데, 내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기에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다. 내가 성숙하지 않아서,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아서, 내가 이 해답을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아직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의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았고, 나에게 정말 큰 의미를 주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정의롭다'고 느꼈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고난의 시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 칭찬받을 만한 뛰어난 인물의 증거다. -베토벤

- 1. 내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
- 1) 예쁜 언어습관을 유지하는 일
- 2) 순간적인 감정
- 3) 해야할 일보다 하고싶은 일들을 먼저 하는 것
- 4) 일찍 일어나기
- 5) 쓸데없는 말
- 2. 빚음 활동 중 절제하고 균형잡힌 삶에 도움이 된 활동
- 1)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
- 2) 선배들의 조언
- 3) 선생님과의 상담
- 4) 내몸빚음
- 5) 언어빚음
- 3.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 1) 분명한 목표를 세워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한다.
- 2) 물질적인 것을 삶의 목표가 아닌 삶의 도구로 삼겠다.
- 3)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게 하겠다.
- 4) 내 말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하고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 말들을 했을 때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 고, 그 말들을 전부 꺼내지 않겠다.
- 5)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겸손을 떨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2 드리미학교 성결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 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 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드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전지수



성결 에세이

가치기초소양 수업을 들으며, 성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성결의 성경적 정의를 배우면서, 성결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성결의 사전적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도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인 것 같다. 성결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의미로 해석하던지 그 속에는 '거룩'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성결과 가장 직결되는 가치가 거룩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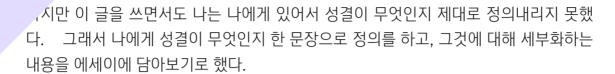
그 이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네 조로 나뉘어서 각각 포스트모더니즘, 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해 조사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조는 4차 산업혁명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조였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지만 4차산업혁명이 성결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왜 '성결'을 배우며 4차 산업혁명을 조사하라고 하는지도 나는 알지 못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조사한 조가 발표할 때,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절대적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한다는 것, 그리고 포스트휴머니즘을 조사한 조가 발표할 때, 포스트휴머니즘의 정의가 유전자 조작이나, 생명 연장 등의 첨단 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신체를 변형하고, 인간의 정신까지 도덕적으로 향상시키려는 현대 과학 기술의 시대를 인문학적으로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듣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힘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았는지, 내 인생의 기준은 무엇인지, 나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 내 몸에 대해, 생각에 대해, 행동에 대해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글을 쓰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글을 쓰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육체적인 것 뿐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나의 좋지 않은 생각들이 죄라는 자각이 없었고, 특히 내 생각에 대한 성결을 잘지키지 못했던 것 같다. 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짓지 않았을 죄들이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내 인생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의 기분이나, 순간의 감정에 따라 살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절제한 삶을 산 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먼저, 나는 성결의 정의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맨 첫 문단에서 썼던 것처럼 성결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문장으로 성결을 표현하더라도 거룩이라는 것을 빼고는 성결을 절대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므로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은 남들과 구별되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 기하면 생각으로 짓는 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체적으로 짓는 죄보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다고 느꼈고, 내가 남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다면 결국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성결'이라는 것이 나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냥 '성결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성결하게 살기 위해 삶에서 적용하는 점이 전혀 없었고 계속해서 성결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나도 수업을 들으며 이런 나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면 나 자신이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내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나의 삶에서 '성결'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평화 에세이

가치기초소양 수업에서 평화에 대해 배우며 평화라는 가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먼저, 평화의 개념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평화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말하고,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라고도 한다. 그리고 평화는 여러 개념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 크게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는 강자가 폭력으로 약자를 짓눌러 이루어질 수 있다. 폭력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들었고, 단순히 폭력이 없고, 전쟁이 없다는 이유로 평화를 찾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극적 평화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말하고, 간디와 마틴 루서 킹 목사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섬경에서는 평화를 어떤 의미에서든 '완전함'이 전제된다는 것, 전쟁에 대한 반대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 신약에서는 화친 즉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했고, 무질서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구원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다음에 이것에 대해 더 배워보고 싶다.

평화에 대해 배우면서 폭력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폭력이 내 생각보다 여러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신기했고, 폭력 발생 이유가 힘의 우위, 이익 추구, 집단적 묵인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수업 중 읽은 책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힘의 우위를 톰한 개인의 이익 추구를 집단이 묵인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읽은 후에는 그것들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다.

폭력은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폭력은 말 그대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해 상대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조적 폭력은 일부 사회구조나 사회적 기관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서비스가 '판매'되어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해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문화적 폭력이란 문화적 폭력은 한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를 활용해서 그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이들을 차별하며 그 사회의 폭력적 구조를 정당화하는 폭력을 말한다. 이런 폭력에 활용될 수 있는 문화로는 사회나 집단이 가진 역사, 사상, 관습, 종교 등을 들 수 있고, 라틴어를 베이스로 두고있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는 인류 전체를 칭할 때 여성은 보이지 않고 남성성만 들어가있는 차별적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도 문화적 폭력의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종교로 위장한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한 종교전체를 좋지 않게 보는 것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그 이후 우리 공동체는 평화로운 상태인지 생각해보았다. 4기 공동체에서부터 학교 전체까지 평화로운 상태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나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 잘 모르고,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개인과 공동체는 금점적인 영향이든 부점적인 영향이든 주고받을 수 밖에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것을 느꼈다.







3P 창의활동 계획서

활동명 : W.I.M 팀원 : 전지수

개요: 드리미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내는 동안 예배할때나, 찬양드릴 때 악기와 목소리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듣는 사람이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음향엔지니어'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이 수업은 교회음향과 믹싱에 대해 더 공부하기 위해 시작된 수업이고, 책을 통한 이론공부 후 예전에 녹음했던 드리미학교 찬양팀의 트랙들을 직접 믹싱해보며 실전경험을 쌓는 수업이다. 더 나아가 다함예배나 주일예배때 공부했던 지식을 통해 직접 교회음향엔지니어가 하는 일들을 해본다

의미있는 청중: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사람

자료 & 재료: 박경배 - 교회음향을 위한 음향시스템 입문

내용 및 활동

먼저 '교회음향을 위한 음향시스템 입문'이라는 책을 읽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공부한다 (2주차)

예전 다함예배나 주일예배때 녹음했던 찬양 멀티트랙을 올려놓은 사이트에서 그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아 믹싱하는 연습을 해본다

그 이후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진다.

한 학기간 이 과정을 반복해 1주일에 2곡 정도를 완성시키는 것이 첫 목표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남들의 도움 없이 음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두명 이상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의 소리와 송출하는 소리를 따로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해결 프로젝트

김민성, 박예솔, 전지수, 정푸름

주제: 시간약속에 대한 인식개선

문제 개요: 아침운동, 수업시간 시작, 기숙사 퇴실시간, 팀 미팅, 버스 출발시간, 기숙사 입실시간, 청소시간등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시간 딜레이가 생긴다.

의미있는 청중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시간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시간의 중요성을 잊은 사람, 선생님들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지식

시간에 대한 중요성과 시간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1분, 2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임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조금이라도 시간 딜레이를 줄이는 것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에센바흐-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단 하루면 인간적 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 -소포클레스-

문제 해결 방법 브레인스토밍

설문지 돌리기

시간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시간 약속을 가장 못 지키고 있는지? (아침운동, 예배, 모임, 과제, 기숙사 입실/퇴실) 상대가 시간을 안지키는 것을 본 적 있는지 (예, 아니오) 약속시간을 안지켰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시간 약속을 늦는 이유?







어셈블리

1번째 어셈블리: 설문지 공지하기, 응답 받기

2번째 어셈블리: 실제 사례 / 설문지 정리& 발표 -> 시간의 딜레이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문제 해결 방법 정리

- ㅁ 1번째 어셈블리 때 설문지를 돌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 구체화하기
- □ 받은 설문지를 정리 후 2번째 어셈블리 때 발표자료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문제의 심각성, 현 상황 알려주기
- □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과, 시간 약속을 잘 지켰을때 우리에게 오는 이익을 정리하여 시간의 중요성과, 개선방향을 설명해주기
- ㅁ 시간과 관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시간에 대한 문제점 인식 변화시키기
- ㅁ 공지나 중요한 일정 전 미리 공지해주면서 시간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 ㅁ 이후 문제해결 전과 후 비교하며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기(어셈블리)

액션 플랜

1번째 어셈블리 때 설문지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과 관련된 문제 알아보기 받은 설문지를 정리(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용하여 통계 내기) 2번째 어셈블리 때 발표자료와 같은 것(ppt, 카드뉴스 등)을 만든다. (학생들에게 시간의 중요성,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자세히 알려주기) 문제해결 전과 후 비교하며 결과 만들 때 효과적인 비교 방법 알아보기

역할 분담

설문지 만들기: 모둠원 모두

받은 설문지를 정리, 통계정리하기: 민성

2번째 어셈블리 때 발표할 자료(ppt, 카드뉴스 등) 만들기, 발표하기: 모둠원 모두







빚음 2단계의 끝자락에 와서야, 겨우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봐줄 수 있게 된 것 같다. 정확히는 칭찬사전 이후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는지 생각해본 것 같다. 칭찬사전때 친구들이 나에게 써준 것들을 보면 '겉과 속이 투명하다', '생각이 많아 보인다', 어떤 친구는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진다' 라는 말도 써줬는데 내가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지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에 대한생각을 많이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비춰졌는지부터, 나의 어떤 행동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는지,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친구들에게 박혀버린건지까지 생각했고,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진다'고 써준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내가 은연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척 가식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보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검은색이 되고싶었다. 내가빨간색이면 파란색의 사람은 나에게 거부감을 느낄 것이 뻔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싶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싶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원했던 나를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이기적인 생각과 사람들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습관들을 보며 나는 안되겠구나 싶었고, 사랑받는 사람보다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느꼈다. 공동체를 사랑해보고 싶다. 입학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드리미학교는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소중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다. 이런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앞으로 나는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할 것 같다. 사람들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먼저 고백해야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배웠으니까이것을 조금씩 실천해보려고 한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미리 쓰는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남을 사람할 준비가 된 나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남을 사람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님을, 남을 사람 하려면 나를 먼저 사람해야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밤법을,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웠다.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좁은 길로 가는것은 생각보다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 환경이 아닌 내 옆에 있는 이들로 인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